

## 어미 ‘-과-’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

장요한\*

1. 서론
2. 문제제기
3. 중세국어 ‘-과-’
  - 3.1. ‘-과-’의 확인
  - 3.2. ‘-과-’의 문법적 의미
    - 3.2.1. ‘-과-’의 통사적 특성
    - 3.2.2. ‘-과-’의 의미
4. 중세국어 이후의 ‘-과-’
5. 결론

### 【요약】

이 글의 목적은 중세국어 ‘-과라’, ‘-과이다’에서 확인되는 ‘-과-’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문법적 의미 기능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언어의 유형론적으로 교착어에 속하는 국어에서 형태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국어 문법사의 대부분의 연구가 형태소 혹은 어미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형태에 대한 분석이나 기능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한 형태 중의 하나가 ‘-과라’, ‘-관더’ 등에서 확인되는 ‘-

---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수료

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가 활발하게 사용된 중세국어의 중심으로 ‘과.’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과.’의 문법적 의미 기능을 규명하고 그 통사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 1. 서론

국어사 연구에서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는 다른 문법 형태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형태의 의미 기능이나 분포 특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이 형태들에 대한 정밀하고 세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문법 형태소 중의 하나가 ‘과라’, ‘과이다’, ‘관더’ 등에서 나타나는 ‘과.’이다.

중세국어에서 ‘과.’는 ‘과라’, ‘과이다’, ‘관더’ 등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그 분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더여(과더)’ 등의 접속어미도 함께 다루곤 하였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종결형식에서 확인되는 ‘과.’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과.’는 일반적으로 평서문이나 감탄문에 나타나며 ‘-술’, ‘-(으)이.’ 외에는 시제나 서법을 표시하는 선문말어미와 통합하지 않고 대체로 1인칭 주어와 공기한다. 이는 ‘과.’의 분포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사실이 ‘과.’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실제로 ‘과.’의 문법적 의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이승녕(1968)에서는 ‘과.’가 현재완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승욱(1970)에서는 과거시제로 보고 그 분포적 특성을 논의한 바 있다. 허웅(1975)에서는 ‘과.’를 ‘-(으)나.’와 대립되는 1인칭 활용의 어미로 보았다. 한편, 고영근(1981)에서는 ‘과.’를 ‘-거

’와 ‘-오-’의 통합형<sup>1)</sup> 정도로 파악하여 ‘확인법’으로 처리하였다.

‘-과-’의 문법적 의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의 쓰임이 활발하고 그 기능이 고정돼 있는 후기 중세국어에서 ‘-과-’가 어떠한 상황에 쓰였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5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과-’의 형태,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의미 기능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 2. 문제 제기

‘-과-’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통해 볼 때, ‘-과-’에 대한 주요 쟁점은 형태의 문제와 문법적 의미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국어에서 형태 분석과 분석된 형태의 문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문법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과-’의 형태 분석의 문제는 ‘-과-’가 공시적으로 더 분석 가능한 형식인지 아니면 분석할 수 없는 형식인지에 초점이 있고, ‘-과-’의 문법적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는 ‘-과-’가 시제적 요소인지 양태적 요소인지에 초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과-’의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서 본 논의에서 제기할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중세국어에서 ‘-과-’는 일반적으로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에도 통합한다. 아래의 예는 형용사 ‘즐겁다’에 통합한 예이다.

(1) 가. 내 이제 훤히 즐겁과라(我今快樂과라) (법화 2:137b)

위 (1)은 ‘장자’가 ‘아들들’이 ‘화택(火宅)’에서 빠져나와 네거리 에 있음을 보고 안도하는 말로 “내가 이제 즐겁구나” 정도의 의미이다. 이 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화자가 현재의 감정을 표현한

1) 고영근(1981)에서는 ‘-거-’와 ‘-오-’가 붙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것이다. ‘바로 이때’ 정도의 의미를 가진 부사 ‘이제’를 통해 볼 때도 알 수 있다. 이 예에서 ‘-과-’를 이승녕(1968:7)과 이승욱(1970: 216~7)에서 제시한 ‘현재완료’와 ‘과거’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2) (1)에서 ‘-과-’는 시제적 요소보다는 양태적 요소로 파악된다.

허웅(1975)에서는 ‘-과-’를 ‘-(으)니.’와 대립되는 1인칭 활용으로 ‘확실성’을 가진 형태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과-’가 ‘-(으)니.’와 달리 평서문과 감탄문에만 나타난다는 점과 그 통합 환경에서도 대립관계를 이루는 ‘-(으)니.’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과-’가 나타난 문장의 주어가 화자 자신인 까닭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3)

2) 그러나 “그 뻘 막스매 내 너교되 滅度에 시러 니를와라타니 오늘사 이 眞實滅度 아닌 들 내 아로이다”(법화 2:23b)에서 ‘니를와라타니’는 ‘이르렀구나 생각하였더니’ 정도로 해석되어 ‘-과-’가 과거시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동주(1995:88-104)에서 제시한 부정법(0)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왜냐하면 ‘내 아로이다’ 역시 ‘내가 알았습니다’ 정도의 의미인데, 이때는 ‘-과-’나 ‘-다-’ 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법은 이미 고영근(1981)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특정한 형태가 개입되는 것이 없이 용언의 동작류에 따라 시제가 결정되는 일련의 어미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부정법이라 하였다. 이를 발전시킨 것이 최동주(1995)에세 제시한 것으로 ‘-다-’와 ‘0’를 대립하는 형태소로 파악하였다. ‘-다-’는 비완료상을, ‘0’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과-’를 ‘-거-’와 ‘-오-’로 분석하는 고영근(2005)에서는 확인법이 동사와 결합되면 동작이 발화시 직전에 완료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즐겁과라’는 형용사에 ‘-과-’가 붙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시제로 파악하였다.

3) ‘-과-’와 관련해서 형태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과-’ 뒤에서 ‘-다-’가 ‘-라-’로 변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를 ‘-오-’와 관련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다-’는 꼭 선행 요소가 ‘-오-’가 아니더라도 ‘-라-’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다-’는 ‘-(으)니’, ‘-(으)리.’ 뒤에서 ‘-라-’로 변동하며, ‘헤리러라’와 같이 ‘-다-’ 뒤에서도 ‘-라-’로 변동하고, ‘보애라’와 같이 감탄의 ‘-애-’ 뒤에서 ‘-라-’로 변동한다. 따

고영근(1981)에서는 ‘-과-’를 ‘-거-’와 ‘-오-’의 통합형 정도의 것으로 파악하여 ‘확인법’에 포함시켰다. 이 논의에서는 ‘-과-’가 일방적 통보기능이 강한 독백에서 주로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이 형태의 문법적 의미를 ‘확인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과-’를 ‘확인법’으로 보고 ‘-거-’와 ‘-오-’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데는 몇 가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첫째는 ‘-거-’와 ‘-오-’가 붙어서 ‘-과-’라는 음성 형식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둘째는 ‘-거-’의 변이 형태인 ‘-어-’, ‘-나-’, ‘-야-’와 ‘-오-’의 통합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과-’에 선행하는 어간이 대부분 타동사인 것이다. 이는 고영근(1981)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어/나/야-’의 교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다. 넷째는 ‘-거-’와 ‘-오-’의 또 다른 통합체로 보고 있는 ‘-가-’가 그 분포가 ‘짓가니오’, ‘헛가니오’, ‘相對헛헛가니오’, ‘헛가뇨’, ‘行헛가니’, ‘쵸 꿩우습가니’, ‘깃거헛가니와’, ‘브리가뇨’, ‘보아라’, ‘나토간디니라’ ‘여회엿가시니’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문문, 명령문, 접속문 등에 자유롭게 나타나지만 ‘-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sup>4)</sup> 이는 동일한 ‘확인법’의 기능을 가진 ‘-가-’는 다양한 분포 환경을 보이는 데에 반하여 ‘-과-’의 분포 환경이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두 형태 간의 형태적, 문법적 의미의 유사성을 포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서 ‘-오-’가 통합한 다른 형식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즉 ‘-오디’, ‘-오려’, ‘-가-’, ‘-다-’, ‘-음’, ‘-샤’ 등은 ‘-오-’가 사라지면서 ‘-디’, ‘-려’, ‘-거-’, ‘-더-’, ‘-음’, ‘-(으)시-’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과-’는 20世紀 초기 자료까지 여전히 그 음성 형

라서 ‘-과-’ 뒤에서 ‘-다-’가 ‘-라-’로 변동하는 것이 ‘-과-’ 안에 ‘-오-’가 있기 때문이라는 필수적인 조건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더-’와 ‘-오-’의 결합형인 ‘-다-’형 또한 ‘-가-’형과 같이 그 분포가 제한적이지 않다.

식을 유지한다. 만약 ‘-과-’도 ‘-가-’와 같이 ‘-오-’가 통합한 형식이 라면 ‘-과-’가 근대국어 이후까지도 그 음성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장윤희(2002:252)는 ‘-과라-’의 ‘-과-’를 ‘-거-’와 ‘-오-’로 분석하여 화자의 확정적인 양태성과 함께 그것이 화자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표시한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감탄문에 가까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적은 순수한 감탄적 상황인 대화 장면에서 ‘-과라-’가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다른 어미들과는 달리 ‘-과-’를 분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나 논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과라-’가 대화 장면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지만 고영근(200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백 장면도 대화 장면 못지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과-’와 관련된 기존 논의는 ‘-과-’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문게 한다. 본고에서는 ‘-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고 그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형태소와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둘째, 그 문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중세국어 이후의 ‘-과-’

### 3. 중세국어 ‘-과-’

#### 3.1. ‘-과-’의 확인

언어 유형론적으로 교착어에 속하는 국어에서 형태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일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형태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일이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중세 국어의 ‘-오.’와 같이 그 출현이 제약을 보이면서도 ‘-디’나 동명사 어미 ‘-口’ 앞에서는 필수적으로 나타나 제약을 보이지 않는 요소는 그 문법적 기능을 추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하나 이상의 형태가 결합하여 재구조화된 요소들의 분석 또한 간혹 어려움에 부딪히게 한다. 무엇보다도 통시적 연구에서의 문헌 자료의 제약은 연구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즉, 현존하는 문헌 자료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 부정적 자료를 볼 수 없다는 점, 현대국어의 직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적용하여 ‘-과.’를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국어의 문법 형태소 중에서는 통합관계가 극히 제한된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업세이다’의 ‘-에/애-’, ‘흐소이다’의 ‘-소.’ 등은 다양한 통합관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형태나 문법적 의미는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차적으로는 구조주의적 분석 방법만으로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그 형태와 문법적 의미를 추적하기로 하겠다.

이 절에서는 ‘-과.’가 나타난 모든 예들을 가능한 밝히고 그 예들에서 ‘-과.’를 확인하기로 한다. 아래는 ‘-과.’가 나타나는 예이다.

- (6) 가. 얻과라(월석 7:9a), 보과라(두언 7:13b), 득과라(석상 19:40 b),  
알와라(두언 15:7b), 맛보과라(두언 16:53a), 저바리과라(두언 3:45a),  
드외와라(법화경 2:251b), 즐겁과라(법화 2:137b)  
가. 보습과라(법화경 4:169a), 굿과이다(법화경 2:24a), 보습과이다(법화경 4:169a),  
免과소라(두언 21:31a), 얻습과이다(월석 13:6b), 씨든과이다(석상 24:29b), 득흐과이다(석보 11:37b),  
맛나습과이다(법화경 3:120b)  
나. 보관더(월석 23:87a)

나. 마리신더(선종영 하:37a), 孝道 | 신더(내훈언 1:37b), 흐린더  
(내훈언 1:6b)

(6) 가. 닷관디(법화경 7:15a), 뒗관디(월석 21:118b), 사르미완디(월  
석 23:82a)

가. 지스시관디(월석 21:18a), 住흐시관디(법화경 7:32b), 사르미  
시관디(월석 23:84a)

나. 싸혀과더(월석 21:95a), 得과더(월석 21:8b), 언과더(월석  
21:128a), 버서나과디여(석보 11:3a)

나. 그치시과더(두언 20:4a), 마르시과디여(두언 22:28a)

(6가)는 ‘-과.’가 종결어미 ‘-다’ 앞에 나타나면서 어간에 바로 통  
합한 형식이다. ‘-과.’가 통합하는 어간은 위 예에서 확인되듯이 동  
사, 형용사에 모두 통합한다. 우리는 (6가)의 예와 ‘흐시다’, ‘하더  
라’, ‘하느다’, ‘훤흐애라’ 등을 통해서 ‘-과.’를 분석할 수 있다. 한  
편 (6가)의 “알와라”(두언 15:7b), “드외와라”(법화경 2:251b)에서 보  
듯이 ‘-과.’는 선행 음이 ‘ㄹ’, ‘y’일 때 ‘ㄱ’이 탈락한다.

(6가)은 ‘-과.’가 ‘-술-’ 뒤에, 그리고 ‘-(으)이-’ 앞에 나타난 예이  
다. 이는 ‘흐습느이다’, ‘도드스븐니이다’, ‘훤흐습으리이다’ 등을  
통해서 ‘-과.’를 분석할 수 있다. (6가)의 “免과소라”(두언 21:31a)  
는 ‘-과.’가 감탄법 형태소로 알려진 ‘-스-’ 앞에 위치한 예이다.<sup>5)</sup>

(6나)는 감탄형 종결 어미 ‘-너’ 앞에 ‘-과.’가 통합한 예로 (6  
나)의 ‘마리신더’, ‘孝道 | 신더’, ‘흐린더’, ‘돋흐느더’를 통해서 ‘-  
과.’를 분석할 수 있다.

(6)은 화합형으로 보이는 형식에서 ‘-과.’가 발견되는 예이다.  
(6)은 원인의 접속어미 ‘-관디’와 원망의 접속어미 ‘-과디여’의 예

5) 한편, 이승희(1996)에서는 ‘免과소라’(두언 21:31a)를 ‘-거- + -웃- + -오-’로  
분석하였다. 이 논의는 고영근(1981)을 따라 감탄법 어미를 ‘-돏-, -웃-, -스-’  
’으로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감탄법의 ‘-웃-’이 ‘-오-’ 앞에  
위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다. 이 화합형에서 ‘-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찰되는 ‘-과-’가 (6가, 나)의 ‘-과-’와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sup>6)</sup> 따라서 본 논의에서 (6)은 제외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6)의 예들을 통해서 본 논의에서 제기한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앞 장에서 제기했듯이 ‘-과-’를 더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본고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가 나타나는 구문의 주어가 1인칭인 것에 있다. 이에 따라서 ‘-과-’를 ‘-거-’와 ‘-오-’로 분석하는 논의이다. ‘-과-’를 ‘-거-’와 ‘-오-’로 분석할 때의 문제점은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감탄의 ‘-도-’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 (7) 가. 太子 | 니르샤디 도홀썬 이사 므스매 흰히 즐겁도다 호시고  
(석상 3:21a)
- 나. 내 地藏 威神力을 보니 恒河沙劫에 다 닐우니 어렵도다(월석 21:172)
- 다. 그 짓 쓰리 발 가져 나오나닐 婆羅門이 보고 갖거 이 각시 사내 얻니논 므스매 맞도다 호야(석상 6:14b)
- 라. 그뵈 大王이 夫人의 슬브샤디 네 업던 이리로소니 내 그되 룰물 미츠리로다(석상 11:34b)

위 예는 주어가 화자 자신인 예문으로 ‘-과-’가 나타나는 구문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예문에서 1인칭 주어와 호응을 이루는 ‘-오-’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 ‘-오-’가 통합했다 할 수 있겠는가? ‘-과-’가 나타나는 구문의 주어가 1인칭이라 해서 ‘-과-’를 ‘-거-’와 ‘-오-’로 분석하는 하는 것은 성급한 분석 태도라

6) 이현희(1995)에서는 ‘-과라’의 ‘-과-’와 ‘-과더’에서의 ‘-과-’를 각각 다른 것으로 파악한 바가 있다.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5세기에서 발견되는 ‘-과-’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어미)로 보고 ‘-과-’의 통사적 성격 및 의미에 대해서 관찰하도록 하겠다.

‘-과-’의 분포적 특성을 정리하면 ‘-과-’는 용언의 어간에 바로 통합하여 나타나거나 ‘-술-’을 선행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으)이-’를 후행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가 나타나는 구문의 유형인데, ‘-과-’가 평서문과 감탄문에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가 제약된 분포 환경을 보이는 것은 그 문법적 의미 기능에 기인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오되’, ‘-오려’의 ‘-오-’와 같이 극단적인 분포 환경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와 유사한 분포 환경을 보이는 형태들을 관찰한다면 오히려 그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 3.2. ‘-과-’의 문법적 의미

#### 3.2.1. ‘-과-’의 통사적 特性

‘-과-’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어간에 통합한다. 그러나 계사와 통합한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의 예는 ‘-과-’가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 어간에 통합한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과-’가 평서법 어미와 감탄법 어미 앞에만 나타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8)은 평서법 어미 ‘-다’ 앞에 결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고, (9)는 감탄법 어미 ‘-니더’와 통합한 예이다.

- (8) 가. 𑏎이 𑏎오되 𑏎마 알와라(내훈언 3:45a)  
 나. 우리 𑏎 바미 𑏎法을 𑏎가 𑏎겨 ..... 부터 𑏎惠 𑏎스오물  
 𑏎마 𑏎호미 𑏎외와라 𑏎다이다(법화경 2:251b)  
 다. 내 이제 𑏎히 즐겁과라(법화경 2:137b)

- (9) 가. 그 어미 닐오되 아가 아가 긴 劫에 못 볼까 ㅎ다니 오늬날  
地獄門 알피셔 아기와 서르 보관더(월석 23:87a)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과-’가 통합한 구문의 유형은 극히 제약되어 있다. 이는 고영근(1981)에서 제시한 ‘-거-’와 ‘-오-’가 통합한 ‘-가-’가 ‘ㅎ가니오’와 같이 의문문에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인가? 본고에서는 두 형태의 문법적 의미 기능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는 감탄법 선어말어미로 화자가 새로이 깨닫게 되는 명제에 대해서 화자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담아 강조하여 서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강한 감탄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의 문법적 의미가 평서문과 감탄문에만 그 분포를 한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명제에 대한 물음이나, 시킴의 발화 목적이 아니라 명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놀라움, 확인 등에 발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나 명령문에는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과-’가 나타난 구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두시언해』에서 발견되는 ‘-과-’ 외에는 모두 인용 구문임을 알 수 있다.<sup>7)</sup>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니르- S ㅎ-’, ‘니르- S’, ‘S 니르-’ ‘S ㅎ-’ 형식으로 화법 구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법구문은 화법동사가 가지는 특성상 여격어와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화법동사의 보문에 ‘-과-’가 주로 통합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은 ‘-과-’가 고영근(2005:227)에서 지적한 독백 장면뿐만 아니라 대화 장면에서도 나타남을 말해 준다.

7) 『두시언해』가 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볼 때, 『두시언해』에서 발견되는 ‘-과-’도 넓게 보면 인용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 (10) 가. 弘이 닐오딘 흐마 알와라 흐고(내훈언 3:45a)  
 가. 太子들히 …… 슬보딘 父母하 出家흐 利益을 이제 흐마  
得흐과이다 흐고(석상 11:37b)  
 가“. 至極흐 衆이 므스매 ㄱ장 깃거 未曾有를 讚嘆흐야 우리  
 이 惡道를 免코 囘히 便安호를 得과라 흐고(법화경 3:  
 176a)  
 가“. 어마니미 太子스우회 업더디여 니르샤딘 내 前生애 여러  
 가짓罪 이실 썩 아드리 이런 受苦를 흐게 과라(월석 21:  
 219b)  
 나. 제 慶賀흐야 닐오딘 내 이제 囘히 즐겁과라(법화경 2:137b)  
 나. 阿難이 머리 조쯔와 부텃기 슬오딘 내 如來스 이리흐신  
 法音 을 듣좁고 내 므스미 實로 몸 밧기 이쇼물 알와이다  
 (능엄 1:53a)  
 나“. 그 어미 닐오딘 아가 아가 긴 劫애 못 볼까 흐다니 오늬  
 날 地獄門 알피셔 아기와 서르 보관더(월석 23:87a)  
 나“. 善容이 므스미 여러 王의 슬보딘 내 王 말씀 듣좁고사  
 내 므스미 썩들과이다 …… 眞實로 슬흐 이리로소이다  
 (석상 24:29b)  
 다. 오늘 이 모든 大會와 쏘 내 다 흐마 보습과이다 智德의  
 健히 化호산 이를 흐마 보습과라 니르시니(법화경 4:169a)  
 라. 부텃 恩惠 갑스오물 흐마 得호미 드외와라 흐다이다(법화  
 경 2:251b)  
 라. 그 ㅼㅼ 므스매 내 너교딘 滅度애 시러 니를와라 타니 오늘  
 사이 眞實스 滅度 아닌 들 내 아로이다(법화경 2:23a)  
 라“. 다 ㄱ장 깃거 네 업던 이를 연과라 흐더니(석상 19:40b)  
 라“. 내 이제 너를 弄노니 ㅼㅼ들 조차 가라 窮子ㅣ 깃거 네 업  
 던 이를 得과라 흐야(월석 13: 19b)  
 라“. 므스매 ㄱ장 깃거 네 업던 이리로다 讚嘆흐야 우리 오늘  
 이 구즌 길흐 免호야 囘히 便安호를 得과라 흐더니(월석  
 14:77b)

(10가, 가, 가“)은 ‘니르.’의 보문 서술어에 ‘-과.’가 통합한 예문

으로 ‘니르-’가 전치되어 있고 대동사 ‘흐-’가 S 뒤에 나타나 있다.

(10나, 나, 나”, 나”)은 (10가, 가, 가”)와 같은 형식에서 ‘흐-’가 생략된 구문이다. (10다)는 ‘S 니르-’ 형식으로 ‘니르-’ 화법구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예문들에서 S는 모두 직접인용문이다. (10라, 라, 라”, 라”)은 ‘S 흐-’ 형식으로 ‘니르-’가 그 대동사형 ‘흐-’로 실현된 것이다. (10라)은 “그 때에 내가 마음에 여기기를 멸도에 능히 이르렀구나 생각하였더니 오늘에서야 이것이 진실한 멸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내적 사유동사 ‘너기-’의 보문이다.

위 예문들에서 우리는 ‘-과-’가 화법동사 ‘니르-’의 보문에 통합되어 나타나는 구문이 직접인용절인 것과 그 상황이 대화 장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가 통합하는 어간의 대부분이 ‘얼다’, ‘깨닫다’, ‘알다’ 등의 지각 동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 라”, 라”, 라”)의 예문에서 ‘깃거’, ‘讚嘆흐야’가 부사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깃거’나 ‘讚嘆흐야’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감탄법 형태소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깃거’나 ‘讚嘆흐야’의 수식을 받는 문장이 감탄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3.2.2. ‘-과-’의 의미

지금까지 ‘-과-’의 통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서 ‘-과-’의 문법적 의미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소극적이거나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는 ‘-과-’가 나타나는 문장을 정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과-’의 문법적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리는 2장에서 ‘-과-’의 문법적 의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송녕(1968)과 이승욱(1970)에서 제시한 ‘현재완료’와 ‘과거시제’는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과-’의 문법적 의미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허웅(1975)에서 제시한 ‘-니.’와 대립되는 1인칭 활용어미는 ‘-니.’와 ‘-과.’가 보이는 통합관계상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니.’와 ‘-과.’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영근(1981)에서 제시한 ‘확인법’은 ‘-과.’를 ‘-거.’와 ‘-오.’로 분석한 다음에 ‘-거.’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고, 기왕의 논의에서 ‘-거.’와 ‘-오.’가 붙은 것으로 보는 ‘-가.’와의 분포적 차이는 ‘-과.’를 ‘-가.’와 같이 동일하게 분석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지금까지 ‘-과.’의 형태, 통사적 특성을 검토하면서 15세기에서 ‘-과.’를 하나의 문법단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과.’의 문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앞 절에서 ‘-과.’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과.’가 감탄문과 설명문에만 나타나고 ‘-과.’가 나타나는 구문이 주로 화법구문이며 화자의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과.’가 화자의 정서적 표현을 담아 서술하는 감탄의 어미임을 추정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아래의 예문은 ‘-과.’가 후대 문헌에서 감탄의 ‘-도.’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는 ‘-과.’가 감탄의 어미임을 짐작케 하는 자료라 생각한다.

- (11) 가. 聖賢人 글왈 닐거 비호는 이리 므스것고 오늘 後에사 기리 붓그러부미 업과라 (삼강행실도(런던대학본, 1481) 충, 24b)  
 나. 성현 글월를 릴거 비혼 배는 므스 일오 이 후에야 거의 붓그러오미 업과라 (삼강행실도(상백문고본, 1581) 충, 24b)  
 다. 사름이 글을 넓으매 비혼 배 무슴일인고 이제 후의야 거의 붓그러오미 업도다 (삼강행실도(규장각본, 1730) 충, 24b)  
 라. 성현의 글을 넓으매 비혼 배 무슴 일인고 이젠 후의야 거의 붓그러오미 업도다 흐엿더라 (오륜행실도(1797) 충, 57a-58b)

(11가, 나)는 15세기 문헌으로 ‘-과-’가 나타난 예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11다, 라)는 감탄의 ‘-도-’가 나타난 예이다. (11다, 라)는 (11가, 나)보다 후대에 간행된 문헌으로 ‘-과-’의 문법적 의미 기능을 관찰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후대에 간행된 (11다, 라)를 통해 볼 때, (11)의 밑줄 친 문장은 화자의 정서가 담긴 감탄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감탄의 의미가 (11다, 라)에서는 ‘-도-’에 의해서 표현된다면 (11가, 나)에서는 ‘-과-’에 의해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 장에서 검토한 ‘-과-’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위 (11)의 예를 통해서 ‘-과-’를 감탄의 의미로 간주하고 아래의 예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12) 가. 難陔 | 머리를 갖고도 상네 지비 가고져 흥거늘 부테 상네  
더브러 흥니실씩 못 가더니 흥른 房 덕흥 즈비 흥야 오늘  
사스시 얼과라 깃거 흥더니(월석 7:9a)
- 나. 赤甲에 사를 짜흥 占卜흥야 올마 사로미 새로외니 巫山과  
楚水<sup>수</sup> 보물 두 번 보과라(두 7:13b)
- 다. 정희 이 江南에 風景이 도흥니 곳 디는 時節에 쏘 너를 맞  
보과라(두 16:53a)

(12가)는 ‘難陔’가 집에 가고자 하여 부처의 눈치를 살피다가 부처가 없는 틈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장면으로 “오늘사 스시 얼과라”는 “오늘이야 틈을 얻었구나” 정도의 의미를 가진 직접 인용절이다. 이는 화자가 부처가 없음을 알고 달아날 틈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적 감정의 표현은 부사구 ‘깃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강세첨사로 알려진 ‘사’의 통합은 이 문장이 단순히 명제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12나)는 “이사하여 새로우니 巫山과 楚水の 봄(春)을 두 번 보는구나”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예이다. 이 때 화자는 지각하는 사태에 대해서 강한 감탄을 표시하고 있다. (12다)

는 당대의 名唱 李龜年을 만나 金석의 감회를 읊은 시이다. “또 너를 맞보과라”는 “또 너를 만나보게 되었구나”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 예에서도 정다운 친구를 만난 듯한 기쁨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표출된다. (13)은 공손법 형태소 ‘-(으)아’가 통합한 예이다.

- (13) 가. 그제사 善容이 므스미 여러 王씨 슬보되 내 王 말씀 듣줍  
고사 내 므스미 씩들과이다 生老病死 | 眞實로 슬흔 이리  
로소이다 나를 出家하야 道理 비호게 호쇼셔(석상 24:29b)  
나. 네 몸 보습던 그지업스신 智慧者 | 優曇鉢華 | 곧호시니  
오늘사 맞나습과이다(법화경 3:120b)

(13가)는 왕의 말을 듣고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 장면이다. 현대어로 하면 “왕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 또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강한 감정의 표현이 나타나 있다. 이어서 나타나는 “이리로소이다”에서도 화자의 감정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13나)는 부처를 보고자 했으나 오래도록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는 장면에서 “오늘사 만나습과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오늘에서야 뵈는군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 또한 비로소 뵈게 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12)과 (13)에서 보이는 화자의 감정의 표현이 어미 ‘-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감탄문의 경어법은 평서법의 ‘습니다’체로 표현되어 감탄법의 형태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시기에는 감탄법의 형태소가 나타나는 점에서 현대국어와 다르다.

이러한 감탄의 ‘-과-’의 문법적 의미는 부사의 실현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14) 가. 上帝 | 노피 살어든 불근 符節로 朝會호숫다 지즈로 馮夷 |와 불 튜미 잇느니 비르수 女 | 피리 잘 부로물 알와라  
(두 9:39)

나. 聖人이 後에 나는 사르물 저호시니라 春陵에 지손 그를 보  
고 俊哲호 사르미 프들 문득 보과라(두 25:33b)

위 (14가)의 “비르수 女 | 피리 잘 부로물 알와라”에서 ‘알와라’는 본문의 다른 문장의 활용(부느다, 朝會호숫다, 參差호얏도다, 늘 구리라, 가리로다)과 비교해 보면 ‘알와라’는 감탄의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예는 “비로소 여자가 피리를 잘 부는 것을 알겠구나”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부사 ‘비르수’가 화자가 새로이 깨닫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준다.<sup>8)9)</sup> (14나)도 부사 ‘문득’이 ‘보과라’를 꾸며 주면서 화자가 새로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에 확신과 함께 강한 감탄을 확실히 보여준다.<sup>10)</sup>

한편 (15)는 ‘-과-’가 감탄법 어미 ‘-너더’와 통합하여 나타난 예이다.

(15) 가. 그 어미 널오되 아가 아가 긴 劫에 문 불까 호다니 오닐날  
地獄門 알픽셔 아기와 서르 보관더(월석 23:87a)

8) ‘비르소’는 현대어의 ‘비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네의 뜻을 비로소 알겠네”와 같이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9) 중세국어 자료에서 ‘비르수’와 그 서술어를 살펴보면 “비르서 알리로다”(내훈언 3:44b), “비르소 알리로소나”(두 8:18a)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비르수’가 나타나는 문장에 감탄법 문말앞 형태소들이 통합되는 것은 우리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0) ‘문득’은 현대국어의 ‘문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득 떠오르다’, ‘문득 깨닫다’에서 보여 지듯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가진다.

(15가)의 ‘서르 보관더’는 “서로 보는구나” 정도의 의미를 가진 예로 ‘-과-’와 ‘-니더’가 통합하여 나타났다. 장윤희(2002:249)에 의하면 ‘-니더’는 화자의 놀라움, 감탄 등의 정감성과 함께 화자의 ‘처음 앎, 확정적 인식’이라는 양태성도 동시에 표현되는 감탄법 어미다. 이는 ‘-과-’의 의미와 유사하다.<sup>11)</sup> (15)의 예는 ‘아기’를 보지 못하다가 지옥문 앞에서 보게 되는 극적인 재회에서의 ‘어미’의 감정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은 감탄법 ‘-도-’가 나타나는 환경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도-’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일까? 우리는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그 차이를 간략하게나마 관찰할 수 있다.

(16) 가. 百千萬億菩薩 摩訶薩와 四衆들히 釋迦牟尼佛의 恭敬하야  
圍繞호스뻬는 양도 보고 다 7장 깃거 네 업던 이를 언과  
라 흐더니(석상 19:40b)

나. 王이며 天龍八部 | 과하야 네 업던 이리로다 흐더니(월석  
1:14a)

(16)은 직접인용문이면서, 유사한 유형인 예이다. 그러나 (16가)는 서술어의 어간에 ‘-과-’가 통합한 예이고, (16나)는 ‘-도-’가 통합한 예이다. (16가)는 중생, 건달과, 야수 등이 부처의神通력을 보고 말하는 장면이다. “네 업던 이를 언과라”는 “예전에 없던 일을 언

11) 장윤희(2002)는 본문 (13가)의 ‘보관더’에서의 ‘-니더’의 용법이 전형적인 ‘-니더’의 용법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관더’에서 ‘-과-’를 ‘-거-’와 ‘-오-’의 화합형으로 파악하고 있어 본문 (12가)의 예에서의 ‘-니더’가 전형적인 ‘-니더’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거-’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형적인 ‘-니더’는 구체적인 청자를 의식하지 않은 채 화자의 심리 상태나 인식 상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것인데, 본문 (14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를 ‘-거-’와 ‘-오-’의 화합형인 것으로 보더라도 ‘-과-’가 나타나는 예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청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즉 독백 장면도 연출된다. 이러한 예는 『두시언해』에서 주로 발견된다.

있구나” 정도의 의미이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강한 감탄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16나)는 ‘善慧’가 뿌린 꽃이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을 보고 ‘王’, ‘天龍八部’가 보고 칭찬하는 장면이다. 이때 ‘-과.’가 나타나지 않고 ‘-도.’가 서술어의 어간에 통합하여 감탄의 의미를 나타낸다. 만약 (16나)가 (16가)와 같이 ‘언다’가 첨가된다면 틀림없이 ‘-과.’가 통합했으리라 생각된다. (16나)의 ‘이리로다’에 ‘언과라’를 첨가하면서 ‘-도.’보다는 더 강한 감탄을 나타내는 효과를 보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과.’의 문법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는 감탄법 문말앞 형태소로 화자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명제에 대해서 화자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담아 강조하여 서술하는 경우에 사용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강한 감탄”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다.

#### 4. 중세국어 이후의 ‘-과-’

중세국어 이후에 몇몇 문법 형태들이 소멸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과.’도 중세국어 이후에 그 출현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다가 19세기 이후에 소멸된다. 아래 (17)은 16세기에, (18)은 17세기에, (19)은 18세기에 ‘-과.’가 나타는 구문이다.

- (17) 가. 내 히미 업세라 기릭게 훗웃 ㄹ옴 슈너게 적삼 ㄹ옴돌 호  
 려ㅎ다가 몰ㅎ과라(순천김 153)<sup>12)</sup>  
 나. 덩티 몰ㅎ로다 나도 녀느 병 업시 심중이 날로 디터 가니  
 민망타 효양의 이룬 ㄹ이업서 들고 놀라과라(순천김 148)

12)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18) 가. 갓 안해서 사노라 성이 王개니 王 아피라 쓰라 내 이 흔  
 글월 쓰과라 내 닐거든 네 드르라(노걸언 하:14b)  
 나. 每 흔 냥에 白臉 銀을 디워 민들려 흐면 흔 돈을 내리라  
두어두어 내 알과라 (박통해 상:30b)  
 다. 네 蒲葉 달라 흠을 인흐여 나도 빈호과라 네 더 告狀 흔 일  
을 發落 흐엿느냐 못 흐엿느냐(박통해 중:59a)
- (19) 가. 돛과라 돛과라 내 돛과라 썰와다 썰와다 우리 두 형을 썰와  
다 도타도타 嬢이 우리들을 브리고 가시니 썰다 썰다 썰다  
 (走 走走得我 趕趕上我兩箇哥哥了 好好了)(오륜해 7:37a)  
 나. 봉의 의복을 감퓷 흐라 흔대 빙빙이 플러와 기동을 안고 양  
턴탄왈, 알과라 턴명이로다 (낙선 1:53)  
 다. 帝 글으샤디 皇后 뜻을 내 알과이다 오직 어딘 사름 어듭  
으로써 寶 삼으라 니르심이로다(어내훈 2:85b)  
 라. 빙빙이 스매로 늦출 빠고 오열 흐여 글오디 앗가 부인이 모  
네라 흐실 식 부인이 내 어미오 빙빙이 부인 썰인 줄 썩  
과이다(낙선 2:96)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는 중세국어 이후에도 동일한 분포 환경을 보인다. 용언의 어간에 바로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終結어미 ‘-다’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중세국어와 동일하다.

중세국어 이후의 자료에서도 ‘-과.’가 나타나는 문맥을 살펴보면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담아 강조하는 의미가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특히 (19가)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국어 이후의 자료가 그리 많지 않아 다양한 예문을 검토할 수 없어 아쉬운 면은 있지만 몇몇 예문을 통해서 ‘-과.’의 의미가 중세국어와 같이 ‘강한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시적 연구에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그 형태가 언제까지 존재했으며 그 기능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위

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의 기능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가 언제까지 존재했는가 하는 것인데, 위의 예에서는 18세기까지 예를 제시하였으나 아래의 예에서 확인되듯이 20세기 초기까지도 나타난다.

(20) 이제 혼달을 더 모양으로 안젓시니 어인 일이고 만심의혹하다  
가인비 안진 것히 끼여진 조약돌 류리 쪼각이 량자하거늘 마  
극이 그제야 썩닷고 알괘라 알괘라(철세계(1908): 95)

(20)의 예는 20세기 초기 자료로 ‘-과-’를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그렇다면 ‘-과-’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가? 이 문제는 감탄법 선어말어미나 어말 어미의 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의 소멸과 관련된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중세국어 ‘-과라’, ‘-과이다’, ‘-관더’에서 발견되는 ‘-과-’에 대해서 그 문법적 의미와 통시적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세국어 ‘-과-’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하나의 어미로 보고, 그 문법적 의미를 감탄의 선어말어미로서 ‘강한 감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중세국어 ‘-과-’의 형태·통사적 특성으로서 ‘-과-’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어간과 통합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두시언

13) (20)의 ‘-괘라’를 ‘-과라’와 ‘-게라’의 혼효형인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구문의 특성을 볼 때 ‘알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가 인용구문에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니르-’ 화법 구문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자가 주어인 직접인용문에 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과-’의 문법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근대국어 자료를 통해서, ‘-과-’의 분포 환경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 문법적 의미 기능에도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주제어(Key-words): 어미(ending), 형태(morphs), 형태 분석(the analysis of morphs),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s),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s), 문법적 의미(grammatical meaning), 통시적 변화(diachronic changes)

#### 참고문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소희(1996), 「16세기 국어의 ‘-거/어-’ 연구」, 국어연구 제142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서정목(2001), 「현대국어 ‘오오체’ 어미의 형태론적 해석」, 『형태론』 3-2, pp. 285~311.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 문화사.  
이승녕(1968), 「어미 ‘-과디여’류 주석고」,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pp. 703~717.  
이승욱(1970), 「과거시제에 대하여-15세기의 ‘-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49·50, pp. 211~222.  
\_\_\_\_\_(1973), 『국어 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 41~71.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1982), 「국어 종결어미에 발달에 대한 관건」, 『국어학』 11, pp. 143~163.
- \_\_\_\_\_(1988), 「중세국어의 청원구문과 관련된 몇 문제」, 『어학연구』 pp. 349~379.
- \_\_\_\_\_(1995), 「-아져’와 ‘-良結」, 『국어사와 차자표기』, 남풍현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pp. 411~428.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정재영(1992), 「통합형어미 ‘-니든’과 ‘-니더’에 대한 고찰」, 『국어학』 22, 371~395.
- \_\_\_\_\_(2001), 「국어 감탄문의 변화-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2, pp. 293~325.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 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 허 웅(1975), 『우리옛말본』, 샘 문화사.
- Katamba, F.(1993), 『Morphology』, Macmillan Press.[김경란·김진형 역 (2000), 『형태론』, 한신문화사]
-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최전승 역(1995), 『歷史言語學』, 한신문화사]
- Comrie, B.(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Basil Blackwell.
- Robert, J. (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Linguistics』, MIT Press.
- Hockett, C.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Macmillan.
- Nida, E.A.(19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slsysis of Words』, 2nd ed.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 Historical Study on grammatical meaning of ‘-과-’

Jang, Yo-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과-’ that we can see in the forms of ‘-과라’, ‘-과이다’, ‘-관더’ and consider its grammatical meaning and diachronic changes.

In Korean as agglutinative language, investigating the function of morphs is significant. Therefore, the majority of Historical Grammar of Korean has focused on morphemes or endings. But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analysis of a few of morphs and their main function still leave. I think that one of such morphs is ‘-과-’ that we can find in the forms of ‘-과라’, ‘-과이다’ and ‘-관더’.

In brief, this thesis aims to explain the grammatical meaning and the diachronic changes of ‘-과-’ after observing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it especially depending on Middle Korean language.

장요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로

주소: (120-1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2동 224-68번지

전화번호: 02)6080-0533 (016-9250-7554)

전자우편: [john0504@sogang.ac.kr](mailto:john0504@sogang.ac.kr)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